

사진기자의
따끈한

'우생순' 감동, 이젠 우리가 있다



온 국민에게 환희와 감동을 안겨줬던 한국여자 핸드볼의 '우생순(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아시지요. 자랑스러운 우리 언니들이에요. 언니들이 팜홀리며 경기장을 누빌때 막내인 우리들은 응원석에서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우와~ 우생순! 파이팅!"

지난 7일 언니들이 무안 목포대에 왔습니다. 벽산건설과 삼척시청이 전국 실업핸드볼대회 결승 티켓을 놓고 한판 대결을 펼쳤습니다.

벽산건설엔 베이징올림픽에서 언니들을 이끌었던 임영철 감독이 지휘하고 국가대표 수문장인 밤언니 오영란이, 우생순 선화를 이어갈 선두주자 김온아 언니가 있습니다.

'88동아'인 온아 언니는 무안이 고향입니다. 여자 핸드볼이 올림픽 첫 메달을 따냈던 1988년 태어나 무안 백제고에서 회장기, 문화부장관기, 전국체육대회 등 3관왕으로 이끌었고 베이징올림픽에서 석연찮은 판정으로 아쉽게 동메달에 그쳤지만 우생순의 대들보입니다.

고향이 좋긴 좋은가 봅니다. 오늘 온아 언니는 고향 무안에서 펼쳐 날았습니다. 우리 막내들도 당당히 '킹왕짱 김온아' 와치며 우생순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베이징의 환희와 감동이 너무 빨리 식는 듯해서입니다. '한데불'의 설움이 다시 엄습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마십시오. 우리 막내들이 나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막내들이 우생순의 감동을 재현할 때입니다. 막내들 파이팅!

/위령기자 jrwi@kwangju.co.kr



"그럼 아빠도 집에 있는거야?"

■ 못 밟을 마누라

어떤 남자 세명이 죽어서 저승에 갔다. 염라대왕이 세 사람을 앞에 놓고 말했다. "너희들 아내 몰래 바람 몇 번이나 피웠는지 말해라. 거짓말하면 징역으로 보낸다." 첫번째 남자가 말했다. "저는 솔직히 10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염라대왕은 잔소리를 한 후 소형차를 주면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말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남자가 말했다. "저는 솔직히 아내 몰래 5명의 여자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 여자는 말고요. 그 여자 옆에 있는 여자 말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 여자는 제 딸인데요."

■ 남자의 재치

한 남자가 처기에서 저녁을 먹으려 갔다.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장인이 장난스런 표정으로 물었다.

"이보개, 자네가 보기엔 자네 마누라하고 장모하고 어느 쪽이 음식 솜씨가 나은가?"

일제히 그 남자한테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남자는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했다.

"집사람이 어머님으로부터 음식 솜씨를 죄다 물려 받은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엄마와 아들

다섯 살과 세 살짜리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둘째 아이에게 줄 인형을 만들고 있었다. 이때 유치원에 있는 아들이 집에 전화를 했다.

"엄마. 나 데리려 안오고 집에서 뭐하고 있어?"

엄마가 대답했다. "응. 동생이 심심해 해서 동생하고 놀 아기 를 만들고 있었단다."

잠시 뒤 아이가 물었다.

■ 누가 더 대단해?

어느 날 밤 TV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즐기고 있었다. 곡목은 쇼팽의 '백노래'였는데, 그 곡을 듣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물었다.

"지금은 저 곡을 작곡한 쇼팽이 대단해? 아니면 곡을 연주하고 있는 저 피아니스트가 대단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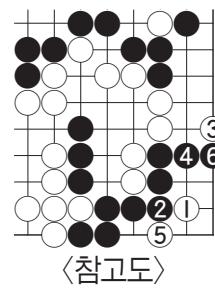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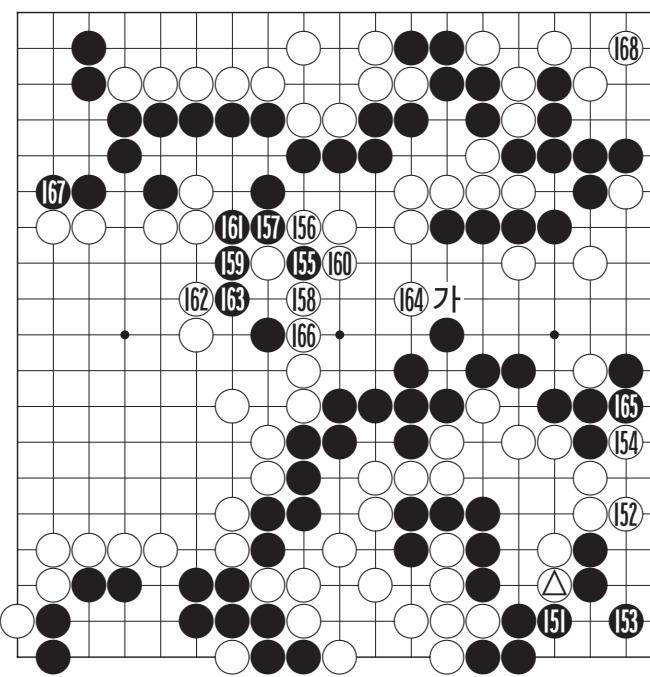
"저렇게 난해한 곡을 이해도 못하면서 듣고 있는 우리가 더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승리의 관건은 우상귀

개인전 준결승 10보(151-168)

白 김영수 5단 黑 방재혁 5단
(전남교사회) (창이유통)



<참고도>

백 ④로 귀를 밀어 간 장면이다. 그러면 과연 귀의 흑 대미는 살 수 있는 것일까. 김영수 5단은 그냥 152로 늘고 말았는 대 귀를 공격한다면 '참고도'의 백 1로 치 중하고 나서 3으로 한칸뛰는 수가 맥점이다. 이때 흑은 4로 꼬부리는 수가 묘수로 6까지 되면 빅으로 살게 된다. 4 외의 다른 수로는 어떻게 두더라도 죽는 것을 확인하기 바란다.

이제 관건은 우상귀를 누가 가느냐인데 방재혁 5단은 일단 155로 불이고 163까지 중앙을 유린하고 본다. 백 166은 '가'만 선수해다면 안두어도 살아 있으나 이곳을 끊기면 선수로 크게 당하므로 정수다.

귀중한 선수를 잡은 방재혁 5단은 미리 생각이리도 해 두었는지 뜯어노타임으로 167에 막아버렸는데 이 수가 경솔한 수로 결국 패착이 되고 말았다. 이 수로는 우상귀를 잡아두어야 했으며 그것으로 백의 승리였다. 백이 168에 두어 대파란이 시작된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SISARWAT

굿모닝 잉글리쉬 <1142>

This chicken is awful

이 치킨 맛 엉망인데

A : This chicken is awful.

B : I know.

Have you ever tasted something so horrible?

A : I can't believe this cost \$20.

B : This is the worst meal I've ever had.

A : 이 치킨 맛 엉망인데.

B : 그렇구나. 전에도 이렇게 엉망인 것을 먹어 봤어?

A : 이것이 20불이라니, 참 나心疼.

B : 이것은 내가 여지껏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엉터리야.

* awful : 엉망인, 엉터리 같은

* horrible : 정말 싫은, 끔찍한

오하요우 니혼고 <1142>

おいしいラーメン屋さん見つけた。

맛있는 라면집 발견했어

A : おいしいラーメン屋(や)さん見つけた。

B : 本當(ほんとう)に?

A : うん. 行(い)こう! 今日は私がおごるから.

B : うわ~ うれしい。

A : 맛있는 라면집 발견 했어.

B : 진짜?

A : 응, 가지! 오늘은 내가 살께.

B : 우와 신난다.

ラーメン屋さん : 라면가게

おごる : 한턱 내다

니하오 중국어 <219>

你上几年级?

몇 학년입니까?

A: 你上几年级?
nǐ shàng jǐ niánjí

B: 大学一年级。
dàxué yī niánjí

A: 学校逃吗?
xuéxiào táo ma

B: 不太逃。
bù tài táo

A: 你 现在几年级?
nǐ xiànlái jǐ niánjí

B: 我们现在几年级?
wǒmen xiànlái jǐ niánjí

A: 我们现在几年级?
wǒmen xiànlái jǐ niánjí

B: 我们现在几年级?
wǒmen xiànlái jǐ niánjí

年纪 [nì ànji] 年级
歲 [yè sè] 岁数

한자 이야기 <859>

一日三秋(일일삼추)

한 일, 날 일, 석 삼, 기울 추

일일삼추(일일삼추)는 하루가 삼 년 같다는 뜻으로, 그 기다리는 마음이 간질(懸切)함을 비유한다. 비슷한 말에 '일각여삼추(一刻如三秋)'가 있다.

여기서 '삼추(三秋)'는 세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 해석은 모든 곡물이 가을이 되어야 익으므로 일(一秋)은 1년을 의미하고, '삼추'는 곧 3년이라고 한다. 둘째 해석은 '삼계(三季)' 즉 9개월을 말한다. 셋째 해석은 단지 가을 3개월을 '삼추'라고 한다.

'일일삼추'는 시경(詩經) 왕풍(王風)의 채갈(采葛)이라는 시에서 유래한다. 이 시는 한 남자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다.

"그리운 사람이여! / 허نية를 캐는 그대를 하루라도 못 보면 / 삼개월을 보지 못한 듯하구나. 그리운 사람이여! / 대낮을 드는 그대의 얼굴을 하루라도 못 보면 / 9개월의 세월이 지난 듯 그렇게 하루가 길구나 / 그리운 사람이여! / 땀을 캐는 그대의 얼굴을 못 보면 / 마치 삼년을 헤어진 듯하구나."

이처럼 열애 중인 남녀의 그리움을 노래한 것이지만, 지금은 친구, 가족, 어떤 일을 간절히 기다릴 때 널리 사용하고 있다.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더마플라스틱 브랜드

제품구입문의: (주)효원약품 062-383-5883